

우리나라 가정학의 당면문제점과 그 역사적·철학적 배경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fronting Problems of Home Economics in Korea and
Its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Causing Background

청원중학교

교 사 김 항 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강 사 유 태 명

Cheong Won Middle School

Teacher: Hang Ah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

Instructor: Tae Myung Yoo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의
규명과 미래 방향제시 |
| II. 우리나라 가정학의 당면
문제점 | V. 결론 및 제언 |
| III. 문제의 배경요인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onfronting problems in home economics and its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causing background, and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 for home economics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This study, hoped to help home economics overcoming its chaotic situation, and to establish academic characteristics through a philosophical study.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ddressed with tight logical consistency :

1. What are the significant problems which home economics has confronted, and the consequences of those problems?
2. What are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problem?
3. What should be the nature of home economics to be able to overcome the

* 본 논문은 1994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confronting problems and what can be proposed for the future of home economics?

Each research question was addressed by analyzing Journal articles, theses, philosophical studies in the fiel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Such problems as the ambiguity in research focus and the nature of academic characteristics, and the limitation of research method have resulted fragmentation and specialization in the field, and the lack of philosophical research. Also they led home economics to the loss of the uniqueness as one of the academic field focusing on home and family. Moreover each problem brought chaos into curriculum of home economics and tha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2. The philosophical causing backgrounds of present problems are western ideas such as Pragmatism, Positivism, Social Darwinism and Korean ideas such as Confucian tradition, Practical Science movement in the 19th century, and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from the middle of 20th century. Along with influencing historical situation these backgrounds have distorted home economics to be technical science oriented.

3. To solve these problems academic characteristics of home economics must be re-established as practical science and as profession.

This study proposed following for the future of home economics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

(1) For the future of home economics, first, it needs to recover the unity as one academic field with its focus on family by overcoming fragmentation and specialization trend in the field. Secondly,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studies must be carried on for the unity of all specialized field in home economics. Thirdly, home economics must try to re-establish and reflect in practice its academic characteristics as practical science and as profession.

(2) For home economics education, first, it should not be the instrument for ideologies of powerful social systems. And teacher education for home economics teachers must include principles of home economics and philosophy and history of home economics enabling teachers to achieve purposes of home economics. Secondly, its curriculum contents should be composed of practical ones beyond technical ones.

I. 서론

A. 문제제기

가정학의 당면 문제에 관한 분석은 현재의 가정학의 문제점을 비판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미래 가정학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역사적으로 여러 가정학자들은 가정학의 연구대상, 목표, 학문적 성격, 연

구방법,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 근본적인 주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다. 그중에서 다음의 몇몇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점으로 모든 가정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정학의 연구대상의 모호성'으로 인한 가정학의 혼미에 대해 이기열(1991:2)은 "가정학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근년에 이 대상이 달라지고 확대되어 가정학의 혼미를 일으키는 중요한 이유의 하

나라고 본다"라고 지적하였다. 즉 가정학이란 본래 가정생활과 관련된 각 요소를 연구하되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가정'과 '가정생활'이 연관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가정생활의 향상 및 가족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학 연구들은 가정생활의 세분화된 영역을 증점적으로 다루고, 가정 이외의 영역들을 가정생활과의 연관없이 독립적으로 다루므로써 가정학의 연구대상에 있어서 흥미상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 '환경'을 의, 식, 주 등의 제한된 물리적 환경으로 인식하여 가정학의 학문 영역이 세분화되고,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학문적 대상의 모호성의 문제를 가중시키게 되었다.

가정학은 '연구대상의 모호성'의 문제 외에도 그 학문적 성격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못하고, 심지어 왜곡되기도 하는 등 학문적 성격과 관련된 문제점도 안고 있다. 그러한 견해로서 최이순(1979)은 '가정학의 독자성의 재확인'과 학문화 확립의 필요성'을 당면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이기열(1991)은 가정학의 학문적 본질을 이해함이 없이 변경만을 위한 '가정학 명칭의 변경'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은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왔는데, 미국 가정학의 경우 학문 성립시기부터 '실천과학'을 표방하면서도 실제의 학문성격은 '기술과학'의 양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던 우리나라의 가정학도 자연히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가정학을 모학문으로 하는 가정과 교육의 내용에까지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 가정학은 전문분야로서 가정학의 사명을 달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철학적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방법의 미비, 즉 연구방법의 제한성의 문제도 안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홍두승(1984)은 우리나라 가정학 연구에 있어서 이론부재 현상과 대부분의 연구가 통계적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학제적 접근과 이론 및 방법의 다양한 사용을 주장하였다. 또한 유대명(1992)은 학계내에 경험과학적 연구방법외의 철학적, 해석학적, 역사적, 사회과학적인 연구방법이 부

족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가정학의 경험과학적 연구의 반면에 따른 문제점을 Habermas의 비판이론을 통해 설명하였다. 이들의 견해는 가정학에 있어서 철학적 연구의 중요성 및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정학의 연구대상과 학문적 성격의 혼미의 문제', '다양한 연구방법의 제한성의 문제' 등은 70년대 학회의 주제로 설정되기도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지속되어온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각 문제의 배경요인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배경요인의 규명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을 알게 해주며 아울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제점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요인을 포괄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은 가정학의 철학적 측면의 연구로서의 의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B. 연구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창간호 이후 현재까지 발행된 가정학회지와 가정과교육학회지 및 가정학 관련 학술지, 그리고 미국가정학회지 등 국내외 가정학 관련 학술지와 학위 및 연구논문, 가정학 관련 단행본 및 가정학의 철학적 배경과 관련된 문헌, 철학·역사·사상에 관련된 문헌 중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정학의 당면 문제점과 그 배경요인을 수량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비판·분석적인 시각에서 해석·연구하였다. 우선 위에 제시된 문헌들이 산발적으로 지적한 문제점들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그 중 근본적이면서도 가정학자들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문제들을 포괄적인 세가지 문제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가정학의 시초라고 간주되는 19세기말부터의 이념·사상적, 사회적 문제점과 위의 세가지 문제를 연관시켜 배경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 가정학의 문제점의 극복을 위해 제시된 새로운 관점의 가정학 철학과 위의 문제점들, 배

경요인들의 포괄적인 분석, 해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정학의 발달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진정한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확립하고, 앞으로의 학문발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가정학이나 가정학 교육 등 가정학의 모든 분야에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모학분인 가정학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가정학 교육이 참된 목적을 깨달아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C. 연구주제 및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 및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주제는 독립적으로나 산발적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다루어져 논리의 일관성을 꾀하도록 하였다.

첫째로 우리나라 가정학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둘째로 이와 같은 가정학의 당면 문제점을 야기시킨 근본 배경요인은 무엇인가?

셋째로 가정학의 당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해 볼 때 가정학 발달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II. 우리나라 가정학의 당면 문제점

A. 가정학의 연구대상의 모호성

가정학 초창기 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가정학사들에 의해 내려진 가정학의 정의를 보면 가정학의 연구대상은 궁극적으로 '가정'이며, 가정생활의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항상 강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장명옥(1970; 이인희 외, 1992:14 재인용)은 "가정학의 목적은 가족의 행복과 인류의 복지를 위한 것이며, 인간발달과 자원활용의 양면으로 추진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일본가정학회(1970; 문수재 외, 1984:183 재인용)도 "가정학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긴밀한 관계가 있

는 사회사상에까지 연장하여,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인적, 물적의 양면으로 연구하여 가정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인간발달을 기하고, 인류의 행복증진에 공헌하는 실천적, 실증적 과학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가정학은 '가정'이라는 고유한 학문적 대상을 가지며, 이것은 가정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학의 연구경향을 보면 가정학의 지나친 세분화, 전문화 경향으로 인해 연구대상의 모호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학이 지나치게 전문화, 세분화됨으로써 가정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는 상반되게 무엇이 진정한 연구대상인지에 대한 혼미상태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견해로서 Norton(1984; 문수재, 1986 재인용)은 가정학 분야의 연구가 지나치게 전문화, 세분화되어 때로는 본질을 적용하기에 난이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수재 등(1984:196)은 "최근 또 하나의 반성은 종래의 가정학이 너무 전문화되어 현실의 문제에 대응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이나 실용분위의 기술론에 기울어져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초점을 안 두었다고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가정학의 전문화, 세분화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최이순(1979)도 전공분야의 세분화 경향으로 가정학의 테두리를 벗어난 증폭되거나 독립된 과를 두어 내용부족과 혼란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가정학의 세분화, 전문화 경향은 우리나라 가정학계에서 이루어진 현재까지의 연구경향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대한가정학회지에 실린 연구논문들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의, 식, 주 등 세분화된 분야별 연구에 주력하고 있고, 그밖의 분야들에서 나타나는 연구경향도 가정학을 '가정'을 중심으로 통합시키기 보다는 연구대상을 지나치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가정학을 모학분으로 하는 가정과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내용이 가정생활의 포괄적인 범주내에서 다루어지기 보다는 지식위주로 편성되고, 6차교육과정 개정전까지는 기술영역도 다루는 등 가정학이라는 고유의 학

문영역에서 벗어난 채 연구대상 확대의 문제가 그대로 반영되어 왔다.

가정학의 세분화, 전문화와 더불어 인간생태학적 관점의 왜곡도 결과적으로 연구대상의 확대와 모호성을 초래하였다. 초기 가정학자인 Ellen H. Richards (1902; 이은혜 외, 1983:141 재인용)는 “가정학이란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 측면으로는 인간의 인접한 물리적 환경과, 다른 측면으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에 관한 이상, 원리, 조건, 법칙들의 학문이며, 특별한 이 두 요인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인희 등(1992:17)도 “가정학은 가정생활을 중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며, 가정의 기능이 사회화 되고, 또한 환경과의 상관성이 날로 깊어감에 따라 관점을 가정생활이 증진될 수 있는 환경이란 문제로까지 연장, 확대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은 모두 인간생태학적 측면에서 가정학에 접근하려는 견해로서 ‘환경’을 다루되 가정학의 핵심인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성의 측면에서 다루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병숙(1990)은 가정 또는 그 구성원들에게 이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행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줄 아는 안목과 태도, 그리고 의욕과 기술을 제공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가정의 정서적 역할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질적향상과 가정내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관계와 문화, 가치, 규범 등의 사회문화적 체계와의 상호작용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정학은 인적·물적환경을 독립적 시각에서 다루고, 매우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환경’의 의미를 ‘가정’과 분리된 주위환경의 개념으로 발전시켰으며, 물리적 환경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예로 가정학 원론서에서는 인간생태학적 관점에서의 환경의 의미를 통합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환경을 물리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하는 본래의 인간생태학적 위상과는 달리 환경을 독립적으로 다룬 경향이 있다. 이와같은 물리적 환경의 강조는 가정학의 세분화를 가져왔고,

‘가정’이 가정학의 중심적 연구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결국 연구대상의 모호성을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B.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의 모호성

오늘날 가정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보면, 아직도 가정학을 가정생활에 관련된 가사기술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나, 근본적으로 가정학계내에서 끊임없는 논의과정을 통한 학문적 성격의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은혜 등(1983)은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의 모호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독자성의 재확인 과 학문화 확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학문적 성격의 규명은 대외적으로 가정학의 학문적 가치와 독자성을 인정받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가정학의 분야별 심층 연구에 앞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 가정학계의 현실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규명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하나의 통일된 견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예로 이제까지 언급되었던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기술과학’, ‘실천과학’, ‘응용과학’, ‘종합과학’, ‘통합과학’, ‘규범과학’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가정학계내에서는 연구방향이나 교육과정 구성 등에서 일관성 있는 입장을 취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가정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이냐에 대한 통일된 해답을 갖지 못함으로써 가정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로 인식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켜 왔다.

이와 더불어 본질적 개념연구의 부족 또한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의 모호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학 원론이나 기타 연구자료에서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언급한 부분을 보면 대체로 미국에서 정의된 개념들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여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가정학이라는 학문적 특수성내에서 재

검토되고, 논의된 후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단순히 사전적 의미만으로 해석될 경우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W.S.사하키안 등(1988; 김경미, 1993:12 재인용)은 “철학에 있어서의 혼란은 대부분 사용된 언어의 애매한 언급과 용어의 잘못된 사용, 의미의 한계에서 유래된다”라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개념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학계에서는 많은 본질적 개념들을 명확한 이해나 논의과정 없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김경미(1993)는 ‘환강’, ‘종합’, ‘통합’, ‘실천’ 등 우리나라 가정학의 성격을 규정하는 개념들이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개념화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조복희(1991)는 이와같은 가정학계의 현실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가정학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있지 않은 상태이며, 가정학에 대한 시각도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규정하는 개념들이 학자들간에 서로 다른 의미로 인식되고, 명확히 개념화되지 못함으로써 우리나라 가정학은 각 학자들이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과 실제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예로 이인희는 가정학을 실천과학으로 인식하였으나 그 내용은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수재 등도 실천과학을 생활의 수단으로 표현되는 기능과 기술을 확고한 학문적 이론에 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김경미, 1993).

C. 연구방법의 제한성

모수미 등(1994:96)은 가정학 관련 학회지의 지난 10년간의 연구논문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이나 실험연구방법을 통해 문제를 일반화하는 평가 검토에 그치고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홍두승(1984:193-194)은 통계적 연구방법의 제한성과 심지어는 잘못 사용되기도 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통계적 방법은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합리적 사고의 보조수단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통계적 분석의 길과는

“수치의 집합”이외에 어떤 것도 아니다.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연구자 자신이다. 동시에 통계적 기법을 정확하게 사용한 필요가 있다.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중 상당수는 적어도 사소한부분에서 기술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연구방법의 제한성은 가정학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1970년대부터 미국 가정학계에서는 실증적 연구방법의 편중성에서 벗어나 비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가정학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문수재(1986)는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정학의 독자적인 이론과 철학을 수립할 수 있는 연구가 경험적 연구와 같이 병행해야만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유태명(1992)도 우리나라 가정학의 편중된 연구경향을 비판하고, 체계적이고 심층한 연구방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가정학의 철학적 연구가 갖는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가정학 연구에는 경험적, 사언과학적 연구에 비해 철학적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까지 대한가정학회지에 발표되었던 논문들의 연구경향을 보면 대부분이 과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고, 최근의 몇몇 논문에서 철학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나 그 비율이나 내용의 충실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모수미 외, 1994).

철학적 연구의 부족과 더불어 우리나라 가정학 연구에서는 역사적 접근방법이 부진하였는데, East(1980; 정덕희, 1988:161 재인용)는 가정학에 있어서 역사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무엇이 발생했고, 또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현재에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사건을 역사의 추세속에서 인과관계, 가능성 또는 이론속에서 평가할 수가 있으며, 역사는 객관성을 부여해 준다”라고 지적하였다. Brown과 Paolucci(1979; 정덕희, 1988:160 재인용) 등도 “역사적인 선후관계를 통해서 개념의 의미를 찾고 역사적인 과정속에서 가정학이 가지는 완전한 의미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역사적 연구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우

리나라 가정학의 연구에서는 역사적 연구가 부족하였고, 역사적 연구를 시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비판적 시각에서 해석, 분석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가정학사의 요약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Ⅲ. 문제의 배경요인

A. 역사적 배경요인

신일철(1987)은 역사적 통찰을 가치의 관점이 개입되는 것으로서 역사적 사건들의 유의미한 관계를 밝혀주고, 여러 사건들을 연속적인 유의미한 전체로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같이 역사적 고찰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을 가치가 개입된 하나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배경요인의 고찰에 있어서 우리나라 가정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미국 가정학의 성립과 발달과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가정학에 미친 영향과, 가정학의 당면문제와의 관련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역사적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1. 미국 가정학의 성립과 역사적 발달과정

가. 가정학 성립시기

초창기 미국의 여성교육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발달된 상태였으며, 단순한 가사실기를 중심으로 한 기능습득에 치중하였으나 산업혁명 이후 여성 노동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여성해방운동과 함께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학문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는데, 장명옥(1989:187)은 당시 교육분야의 상황에 대해 “산업혁명의 영향이 교육분야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John Dewey의 새로운 교육이념에 의한 대중을 위한 실부, 실천교육이 대두하게 되었다”라고 지적하였다. John Dewey의 경험중심 사상에 의한 실부, 실천교육은 과학적, 경험적 지식을 강조하는 실증주의 사

상과 결합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적자생존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적 진화론과 그 원리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강조한 프래그머티즘 등은 당시 미국 사회를 지배하였던 핵심적인 사상들로서 가정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초창기 가정학은 이러한 사상적 배경으로 인해 경험적 지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체계화 되었다. 또한, 당시의 가정학은 ‘가족’, ‘가정’을 강조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었으며, 여성의 역할도 가족구조 또는 현체제를 유지시키는 교육에 불과했다. 더우기, Catherine Beecher는 당시 대두되었던 여성해방론과는 달리 가정과 목의 최대목표를 가부장적 제도에 순응하고, 신앙심이 강한 교양있는 여성을 기르는 데 둠으로써 가정학이 배격되고, 현재 가정학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Vincenti, 1981).

가정학의 대학과정 도입은 ‘Land-Grant College’를 최초로 볼 수 있는데, Brown(1985)은 이러한 대학은 농업기술을 위한 과학의 사용 등 더 나은 ‘know-how’에 관련된 기술적 측면에 관심을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Land-Grant College는 실용적인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함으로써 가정학도 여성의 역할과 가정생활에서의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Land-Grant College의 계기가 되었던 ‘Morrill Land-Grant Act’는 산업계층을 비롯한 모든 계층, 특히 여성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설립된 Land-Grant College는 자연히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1887년의 ‘Adams Act’는 실험실을 개설함으로써 조사연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가정학의 기본적인 지식체계를 세우도록 하였는데, 미국정부의 방침에 따른 법제상의 호응은 가정학을 생활의 과학화와 직업교육, 기술교육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방향짓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위와 같이 John Dewey의 실용주의 철학은 가정과를 비롯한 여러 교과목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고, Land-Grant College와 같은 기관의 가정학은 기술적, 과학적 관점을 중요시한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 Lake Placid Conference시대와 이후의 가정학
20세기에 접어들 무렵 미국의 사회적 상황을 보면, 관료체제가 팽배하여 의사결정에서 관료화가 나타났다. 산업화와 과학화 추세로 기술적 측면의 발달이 이루어졌으며, 실증주의에 의거하여 경험과학적 지식이 반영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가정학계에서는 가정학의 원리와 명칭등의 문제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됨에 따라, 가정학 운동이 구체화되었고, 이 운동은 특히 Richards와 Dewey가 주축이 되어 1899년 최초의 'Lake Placid Conference on Home Economics'를 개최한 결과를 낳았다(Vincenti, 1981 : 윤복자 외, 1983 재인용).

Lake Placid Conference 초기에는 가정학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나타나기 이전이었므로 가정학의 근본적인 문제와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후 가정학의 주체적 인물이었던 Ellen H. Richards는 economic materialism에 입각하여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기술적인 합리성에 가치를 두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교육에 있어서도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Lake Placid Conference에서는 Richards, Dewey, Norton을 중심으로 한 그룹과 Chown, Talbot, Andrews를 중심으로 한 그룹간에 인간, 가정, 사회 등 가정학의 관련 개념들에 있어서 상호 대립된 의견이 나타났다(Brown, 1984). Richards를 중심으로 한 그룹은 '기술적 관점'으로 그리고, Chown등의 견해는 '실천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실용주의, 실증주의 등 당시의 철학적 경향과, 강한 지도력을 가졌던 Richards에 의해 기술적 관점이 우세하였다. 따라서 이제까지 '가정'을 중심으로 하였던 가정학은 물리적 측면과 학부연구에 있어서 '노동의 분담'을 강조함으로써 가정학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가속화시켰고, 현재의 가치에 순응하는 단일한 의식구조는 가정학계의 수동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10차에 걸친 Lake Placid Conference에서는 가정학의 명칭과 교육적 측면 등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1908년 10차 회의를 계기로 Lake Placid Conference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해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을 결성하였다. 이 시기는 기

술적 합리성에 가치를 두었던 시기로 직업교육을 강조하고, '가정관리'를 학문의 최대 목표로 삼았다. 또한, '노동의 분담' 개념이 사라지고, 각 전문분야로 발전하였으며, 생태학적 관점의 반영으로 가정학의 영역이 산업체 및 사회시설 등으로 크게 확대되는 결과를 가지왔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가정의 사회적, 정신적인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가정학의 정체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당시 출간된 'Home Economics New Direction'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AHEA의 과거와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정학의 이념과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에는 가정학의 연구가 가족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가정학을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는 견해가 대두하였다. 1973년 11회 Lake Placid Conference에서 Andrews (Vincenti, 1981 : 윤복자 외, 1983 재인용)는 "이상적 가정은 심리적 안녕을 포함하는 건강한 가정을 일컫는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미국 가정학에서는 가정과 가족을 학문의 중심으로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학제적 접근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가정학은 오늘날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학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성립시기에 대두되었던 실증주의, 실용주의 등과 같은 사회적 사상 및 국가적 차원의 호응으로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2. 우리나라 가정학의 성립과 역사적 발달과정

가. 대학의 가정학 및 가정학회의 변모

우리나라 가정학의 발달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개화기 이전의 가정교육은 가사수행과 여성으로서의 부덕함양을 위한 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가정내에서 이루어졌던 여성에 대한 가정교육은 1896년 이화학당에서 가사(세봉, 자수)를 가르치면서 학교교

육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사회적으로 가정학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가정과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1929년 이화여전에 가사과가 설치됨으로써 한국 가정학의 대학수준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화가정학 50년사(1979)에 의하면 초기 교육과정은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수학한 김합라와 콜럼비아대학원에서 수학하였던 Harriet Palmer Morris에 의해 구성되었는데, 우리나라 가정학은 초기부터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으로써 당시 미국 가정학의 중심을 이루었던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해방이후 1947년에는 가사과가 가정과로 개칭되었고, 대한가정학회가 창립되면서 가정학의 본격적인 학문연구가 시작되었다. 대한가정학회의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한국 가정학의 시대별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는 '생활의 과학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강조되었던 시기로서 최이순이 가정학회지 창간사(1959)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가정학계에서도 '가정생활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생활의 과학화'는 1960년대에 와서 구체화되어 과학지식의 급증과 기술개발의 촉진으로 가정학에서도 많은 자연과학적 측면의 원리연구가 추진·시행되었다. 또한 가정대학이 설립되면서 가정학의 전문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전세경, 1989).

1970년대에는 '70년대 가정학교육의 방향', '가정학의 전문성과 영역', '가정학의 본질' 등이 대한가정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의 주제로 선정되는 등 미국 가정학계와 마찬가지로 가정학의 철학과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같은 연구는 아직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문제제기의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가정학계의 연구경향은 여전히 통계적 연구의 만연과 세분화와 전문화의 양상을 띄고 있었다.

1980년대에 와서는 인간생태학적 측면에서 가정학을 보는 견해가 대두하였는데 이에 따라 학회의 연구주제도 가정과 사회와의 관계, 특히 현대사회에서 가족 및 가정생활을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한 연구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급속한 발전을 보이면서 전공분야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가속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반성과 역기능으로 가정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철학의 정립이 요구되기도 하였다(전세경, 1989). 이에따라 가정학회의 주제도 '가정학 연구의 최근 경향' 및 '가정학 연구의 새로운 시도'등으로 가정학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나.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모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은 가정학을 모학문으로 하여 각 시대마다의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당시 가정학계의 경향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모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당시 가정학계의 경향 및 문제점등이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차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도화된 교육과정으로 '가정생활의 향상'이라는 당시의 교육 목표는 초기 미국 가정학계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물리적 향상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학의 학문적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학문적 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련된 것으로 목표와 내용의 상호관련성이 결여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정학의 대상을 가정차원에서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자주적인 인간형성을 목표로 하였는데 교육내용은 제1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목표와의 관련성이 결여되었다.

1969년의 교육과정 부분개정에는 경제성장과 산업발달에 발맞춰 교육내용도 유기적 연관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적 필요성과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을 위한 교육내용 재조정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다(이인희 외, 1990). 이러한 정부의 교육방침에 따라 개정된 가정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은 교육과정 제정이래 최대로 기술적 양상을 띄고 있으며, 종래의 교육과정이 '실천적 목표'와 '기술적 내용' 사이의 차이로 문제시되었던 것과는 달리 목표자체도 기술적

인 것으로 삼았다.

제3차 교육과정은 부분개정의 이념이 계속 이어져 기술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가정', '가사'로 분리하였는데 '가사'과목에서는 주로 기능적인 측면을 다루었다. 교육내용은 과거의 의, 식, 주 일변도나 지나친 영역 확대 경향에서는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나 당시 가정학의 연구경향이 아직까지 세분화, 전문화의 양상을 띄고 있음을 볼 때 가정과 교육도 영역의 세분화 경향에서 완전히 탈피했으리라 보기 어렵다.

제4차 교육과정은 목표면에서 개인적 차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실천적 영역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목표에서 제시한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은 어떤 측면에서 다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당시의 교육내용은 앞선 교육과정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생활의 질'을 물질적 측면 위주로 향상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고, 교육내용의 세분화 경향이 지속되어 '통합주의 입장에서 교육내용을 책정한다' (이인희 외, 1990:53)는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기능적 측면 외에도 현대사회에서 가정의 의미와 가족관계를 이해하는 실천적 영역을 다루려 하고 있으나 역시 교육내용을 보면 이론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목표와 실천영역이 부합되지 못하였다.

1995년 부터 시행된 제6차 교육과정은 '가정과 의 남녀공통이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목표로 제시한 것과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내용도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비교적 일치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정학이 목표로 하는 '자주적인 인간'의 형성 및 이들에 의한 '자주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가정학자 및 가정과 교육자 스스로가 가정학의 진정한 의미와 사명을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은 모학문인 가정학과 같이 경험적, 기술적 지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왔고, 교과과정을 구

성하는 기본입장, 즉 기본철학과 같은 개념적 틀인 뚜렷한 교과과정 준거가 없이 구성됨으로써 목표와 내용이 부합되지 못하는 모순점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B. 철학적 배경요인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가정학의 당면 문제를 야기시킨 철학적 배경요인으로 사회적 다윈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실용주의, 실증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덧붙여 우리나라의 사상적 특수성도 관련시켜보고자 한다.

1.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

사회적 다윈주의는 Herbert Spencer, William G. Sumner 등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다윈의 진화론에 있어서 적자생존, 생존경쟁 등의 개념을 사회현상에 연상시켜 심리학, 사회학, 윤리학, 미학 등 여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세계사상사전, 1975:78).

대표적인 사회적 다윈주의자였던 Herbert Spencer는 교육은 완전한 삶을 가능하도록 준비시키는 기능이며, 이 완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은 바로 과학적 지식임을 주장하였다(이해명, 1986). 이와같이 교육에 있어서 과학적 지식을 강조하였던 사회적 다윈주의는 물리적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상으로 가정학을 비롯한 19세기 모든 학문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Vincenti(1981)는 그 증거로 당시 미국의 가정학자였던 Catherine Beecher가 『Principle of Domestic Science』에서 Spencer에 관해 인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 Ellen H. Richards도 다윈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한 생활개선헌(euthenics)에서 다윈주의에 관해 몇 가지 단서를 제시하고, 인간의 임무는 자연의 힘에 대해 연구하고, 피할수 없음을 감수함으로써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다윈주의 개념이 가정학의 대상을 환경영역까지 확대시키는 인간생태학적 관점을 마련하는데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다윈주의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이

따르는 것을 유용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물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economic materialism과 관련성을 갖는다. 또한 가정학의 인간생태학적 관점은 economic materialism에 입각하여 의·식·주 등 물리적 환경영역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정학의 연구대상을 모호하게 하기도 하였다.

2. 실용주의 (Pragmatism)

Vincenti(1981; 윤복자 외, 1983 재인용)는 “실용주의는 전통에 대한 의문과 믿음에 대한 평가로 나타나는데, 초기 가정학자들은 가정과 가족에 대한 전통의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할 것을 주장하였다”라고 지적함으로써 실용주의와 당시 가정학계의 관련성을 지적하였다. 초기 가정학에 영향을 주었던 실용주의는 19세기 중엽 미국사회에서 나타난 진보적인 지적운동으로 산업혁명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 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가치관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신일철, 1987). 또한 실용주의는 사회적 다윈주의의 영향속에서 나타났는데, John Dewey에 이르러 도구주의로 발전하였다. 신일철(1987)은 실용주의 철학이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수단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what-question)’을 모두 수단, 방법, 기능에 관한 물음인 ‘how-question’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실용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초기 미국 가정학계에서는 수단을 강조하고, 효율성을 최대의 목표로 삼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결과적으로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왜곡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가정학은 실천과학으로서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행동을 묻는 질문(what-question)이 행해지는데 당시 가정학계에는 실용주의의 영향으로 가치가 배제되고, 방법을 묻는 질문(how-question)이 추가됨으로써 기술과학의 측면으로 왜곡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 미국 가정학계 및 이를 수용한 우리나라 가정학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학문적 성격의 모호성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실용주의는 교육에 있어서도 수단과 방법 및 경험적 지식을 강조함으로써 가정학에서도 경험적 지식

을 가치있는 것이라 믿고, 과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John Dewey는 철학적 사고의 기능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성공적인 통제와 조작을 위해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유용한 관념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았다. 실용주의 사상은 이 유용성의 근거를 물질적 보상에 두었고, 이로 인하여 가정학의 목표인 ‘개인과 가족의 질적향상’도 자연히 물질적 가치를 강조하는 측면으로 방향지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가정학을 의·식·주 위주로 편성하고, 세분화와 전문화 경향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정학의 연구대상의 모호성을 야기시켰다. 또한 각 전문분야별로의 세분화 경향은 나아가서 가정학의 존재이유를 말해 주고, 철학적 배경을 마련하는 본질적, 철학적 연구의 부족 등 연구방법의 편중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Knight (김병길 역, 1991:84)는 “실용주의자에 의하면 지식은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들은 주위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지식을 얻는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인간과 환경의 상호성을 주장하였던 실용주의 사상은 가정학에서 인간생태학적 관점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적, 물리적 대상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될 수 있다고 보는 실용주의 사상의 기술과학적인 측면의 견해는 실천과학으로서 가정학의 본질과 상반되는 것으로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모호하게 하였다.

3. 실증주의 (Positivism)

실증주의는 Saint-Simon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그는 이 용어를 “과학적 방법과 그것의 철학적 연장”으로 설명하였고, 19세기 불란서 철학자인 Auguste Comte (Wahl, Jean; 김관오 외 역, 1987)는 “인간 정신은 신학적, 형이상학적, 실증적인 세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서 과학적 단계가 되는 유일한 단계는 실증적 단계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Kneller (전경갑 외 역, 1987:185)는 “실증주의자들은 모든 진정한 지식은 과학적이며,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해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실증주의는 경험론에 의거한 것인데 경험론이란 지식의 원천이 이성보다는 경험에 있다고 주장하는 철학적 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증주의는 사실적, 경험적 지식을 강조하여 가정학 및 여러 학문분야에서 과학적, 경험적 지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1890년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실증주의의 비판적 형태로 비판적 실증주의가 나타났는데, 이 비판적 실증주의에서는 과학을 인간유기체가 일단의 지각에 대항하고, 환경에 대해 스스로 적응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보고, 객관적 인식에 있어서 가치의 배제를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물가지성'과 '도구로서의 과학'을 주장하였던 실증주의 사상은 능동적인 인간의 존재를 기계적 결정론의 인식구조 내에서 단순한 사물이나 객관적인 물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은 호르크하이머를 비롯한 프랑크푸르트학파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현존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여야 한다는 실증주의적 인식은 기존의 사회체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게 하고, 새로운 지배형태인 '기술관료적 지배체제(technocratic domination)'를 현대사회 속에 조성 유지시키게 된다(Bottomore, 1984). 마르쿠제(1964; 임희섭, 1984 재인용)는 이와같은 현대사회에서는 기술적 합리성이 자연 및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작용하며, 따라서 기술은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실증주의의 경향은 가정학 및 여러 학문분야에서 기술적 지식의 편중을 가져왔다.

비판이론가인 Jurgen Habermas는 "과학에는 경험적·분석적 과학, 역사적·해석적 과학, 비판적 과학이 있는데 실증주의의 오류는 바로 경험적·분석적 과학이 모든 종류의 지식에 적합하다고 보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윤평중, 1990:99). 그는 또한, "막스 베버 이래로 과학적 연구는 사실과 가치의 이원론에서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을 파악하는 물가지적 태도를 권하고, 이를 가치중립이라 하였다. 이러한 과학주의는 객관적인 인식을 위해 가치를 배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가치를 받아들인 다음 그것에 봉사하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된

것을 스스로 은폐하고, 자기기만을 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였다(신일철, 1987:31).

이처럼 실증주의 사상은 인간의 행동을 물가지적이고,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본래 가정학은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분야'로서 인간의 행동에는 가치가 개입되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정학의 본질과 상반된다. 또한 실증주의 사상은 기존의 가치를 부비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실천적 판단에 의거하여 목표를 세우고,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는 실천과학으로서의 가정학의 사명에도 위배되므로 결과적으로 가정학의 학문적 방향을 본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4.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상적 배경

가정학의 당면문제점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상적 배경은 조선시대 유교중심주의와 후기에 나타난 실학사상 및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유교를 생활윤리의 규범으로 삼아왔던 조선시대에는 남존여비사상으로 여성의 지위는 강조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여성교육은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가사기술을 습득하는 등의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한 비형식 교육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당시에는 유교적인 부덕함양에 필요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여성 교훈서가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장명옥(1989)은 그러한 교훈서들이 덕성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기능교육을 다루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현대 가정과교육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덕성교육, 기능교육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우리나라의 초기 가정교육은 초기 미국 가정학에서 나타난 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가족' 및 '가정'을 강조하고, 이에따른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였지만, 가정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의 내용도 당시 체제를 유지시키는 수동적인 교육에 불과했고,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가정학 및 가정과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그 내용이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한 기술을 중심으로 편성되는데 바탕이 되었다.

조선후기에 나타난 실학은 왜·호란 후 민족적 자각과 서구문물의 자극, 그리고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정신으로 하고, 실증적 방법을 통하여 사회모순의 제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세치용(經世致用),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용적인 학문을 말한다. 당시의 실학자들은 실용·실증적인 사고와 방법을 지니고, 그 탐구의 대상을 넓혀갔으며, 합리주의 정신과 비판, 과학, 실증정신을 주장하였다(김경식 외, 1991:137-144).

실학사상의 뿌리는 미국사회의 실용주의, 실증주의 등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학문분야의 사상적 바탕이 되면서 경험과학적 지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났고, 그 직접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정학에서도 경험과학적 지식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물리적 생활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또한 서구의 학문을 수용하였던 경향은 가정학계에서도 나타났는데, 가정학의 체계를 이루는 본질적 개념들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은 결과적으로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의 모호성을 가져왔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산업화는 고도의 성장과 경제규모의 확대를 목표로 한 것으로 효율을 강조하였던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도시화와 여성의 지위향상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화, 산업화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육의 도구화와 과학적 지식의 만연 등을 가져오기도 하였다(Apple, 1987; 최원형 역, 1988). 정재걸(1988)은 근대과학적 지식이 전학문분야에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20세기 철학의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논리실증주의의 대두와 전개과정도 과학적 지식의 형식을 철학에 도입하려는 시도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근대화와 산업화는 학문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과학지식의 급증과 과학기술 개발의 촉진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향은 가정학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의, 식, 주, 가정관리, 육아에 관한 자연과학적인 측면의 원리연구 및 원리적용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썼다(윤서석, 1981). 또한 산업화 시기의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을 보더라도 당시 가정학의 영향으로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목표와 내용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IV.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의 규명과 미래 방향제시

우리나라 가정학의 당면문제점에 대한 배경요인을 역사적 측면과 철학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가정학의 당면문제에 지적하였던 연구대상의 모호성, 학문적 성격의 모호성, 연구방법의 제한성 등은 궁극적으로 가정학 성립시기의 역사적, 철학적 배경요인들로 인하여 가정학을 기술과학적 측면으로 방향지움으로써 야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학문성립 이후 현재까지 가정학은 실천적 목표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학문적 연구 및 활동에 있어서는 기술과학적 측면을 더 강조하여 왔다.

Brown과 Paolucci(1979)는 가정학은 본래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분야'로서의 특성을 지니나, 오늘날에 와서 전문분야로서의 성격이 결여되어 있고, 실제 학문적 경향에 있어서는 오히려 '비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분야'에 더 가까운 측면으로 발전되었음을 지적하고, 학문법주의 불분명에서 오는 혼란을 경고하였다. 또한 의, 식, 주를 중심으로 하여 분야별로 세분화된 기술적 지식을 주로 다루는 등 실천과학으로서의 성격이 결여되었음도 지적하였다.

본 장에서는 실천과학이자 사명지향적인 전문분야로서 가정학 본래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하고, 이러한 학문적 성격을 관철해 나감으로써 당면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정학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A.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

가정학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실천과학으로서 인식되어져 왔다. 장명옥은 "가정학이란 인간 및 가족과 이를 둘러싼 환경, 또한 인간 및 가족과 환경과의 관계를 통합적, 실천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이다."

라고 정의함으로써 가정학의 학문적 통합성과 실천 과학으로서의 특성을 강조하였다(이은혜 외, 1983: 141). 또한 이기열(1987:155)은 “가정학은 인간생활을 기본으로 하여 가정 및 이와 긴밀히 관련된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생활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인간생활의 개발을 도모하는 실천과학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과학은 체계적으로 유도된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논리학, 수학, 윤리학 등을 과학의 범주로 보았다. 한편 19세기 미국에서는 ‘과학’을 ‘경험자연과학’과 같은 의미로 간주하였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하나의 과학으로서 간주되었던 가정학 또한 그 학문적 성격이 경험과학적인 ‘기술과학’으로 왜곡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Habermas와 같은 현대사회비판이론가들은 ‘과학은 즉 경험과학’이라고 믿는 것을 잘못된 인식 또는 이데올로기로서의 관습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술과학’은 최선의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가치가 배제된 ‘how to do’와 같은 방법을 묻는 질문을 추구한다. 또한 인간을 자연적, 물리적 대상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될 수 있다고 보고, 목표는 이미 설정된 것이므로 비도덕적이라도 목표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정치·도덕적 규범에 관한 이성적 사고를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신념, 규범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제한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Brown (1980)은 이와같은 가정학에 대한 기술과학적 견해가 인간과 인간생활에 있어서 제한된 개념을 형성하고, 인간을 물질화하며, 기술적인 know-how가 행복한 삶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제한 것에 반대하여 실천과학으로서의 가정학을 주장하였다.

‘실천과학’으로 가정학을 보는 견해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는데, Brown(1980)은 “문화전통은 규범과 같은 개인적 삶의 형태를 만들어 주고, 사회, 가족, 사회적 관계를 융합시키므로, 실천과학으로서 가정학은 가족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 문화전통을 전수하는 인적재생산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정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실천’의 개념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심지어 상반되기도 하는데, 본래 ‘실천’은 자유로운 목적의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리이스어의 praxis에서 유래하였다(세계사상사전, 1975: 196). ‘실천적’이라는 용어는 첫째로, 행동과 관련된 개념인 실천적인 것과 진리탐구와 관련된 개념인 이론적인 것의 분류에 사용되며, 둘째로, 실천적 행동과 기술적 행동으로 행동을 분류하는데 사용되는데, ‘실천과학’으로서 가정학은 이 두가지 의미가 모두 적용된다(Brown, 1986:41). 또한 ‘실천적 행동’이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정치적, 도덕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합의에 의해 형성된 규범은 가치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실천과학’으로서 가정학은 바로 이러한 ‘실천적 행동’을 통한 자주적인 인간형성과 나아가서 이와같은 자주적인 인간들로 구성된 ‘자유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Aristotle는 학문의 영역은 서로 다르게 기능하고, 그 기능에 의해 범주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Brown과 Paoluccis는 Aristotle의 분류를 기초로 하여 학문분야를 순수학문, 사명지향적 전문분야, 해석적 분야의 세가지로 범주화하였는데, 각 분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먼저, 순수학문은 학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해석적 분야는 인간의 특성 또는 환경의 어떤 측면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통해 창작을 하는 분야이다.

반면에 사명지향적인 분야는 전문분야로서 순수학문으로부터 지식을 종합하고, 조직하며, 각각의 지식들에 대한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분야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분야(personal service profession)’와 ‘비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분야(impersonal service profession)’로 나뉘어 지는데,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분야로서 가정학은 ‘가족의 안녕’ 및 ‘생활의 질 향상’과 같이 비관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목표를 가진다. 이것은 가정학의 실천과학적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지식을 실천적인 측면으로 재구성하여 이론과 실재를 융화하려 한다. 또한 전문분야로서 가정학은 경험과학적 지식만을 다루지 않고, 분명하고 절대적인 목표와 행동에

대한 주의깊고 비판적인 시도와 함께 해석적 측면에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통찰을 다룬다(Vincenti, 1981).

이와같이 전문분야를 다루는 전문가로서 가정학자는 가정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그들의 전문가적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려는 책임감을 가지며, 인류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B. 가정학 및 가정과 교육의 방향제시

이제까지 실천과학으로서, 그리고 전문분야로서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해 보았는데, 이와같은 가정학의 학문적 본질에 근거하여 당면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가정학의 방향을 제시해 보민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정학의 세분화와 전문화로 인한 연구대상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가정학은 세분화와 전문화 경향안에서도 학문의 중심인 가정을 구심점으로 하는 하나의 학문영역으로서 통일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학 각 분야별 연구가 단일 학문분야로서 다루어지기보다는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가정생활의 향상을 동일한 목표로 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정학내의 각 분야별, 타학문내의 가정학 관련 분야들간의 학제적 연구도 요청된다.

둘째로 가정학의 각 영역이 공통성을 가지고, 하나의 맥락에서 이해되기 위하여 먼저 그 기초가 되는 가정학의 역사적 연구 및 철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학 철학', '가정학 원론'과 같이 가정학 본래의 목적 및 존재이유를 말해 줄 수 있는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하며, 가정학의 본질 및 가정학의 사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방법론에 있어서도 철학적, 역사적 연구방법을 현재보다 많이 이용하고, 역사학자와 철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철학적, 역사적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학문적 성격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정학은 실천과학 및 전문분야로서 본래의 학문적

성격을 표방하는 것을 넘어서 가정학자들의 교육, 연구, 서비스 등 모든 전문행위에 실제로 이러한 학문적 성격을 관철해나가야 한다. 즉 가정학자들 스스로가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개인 및 가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은 가정학의 경향을 단거로 하는 것이므로, 가정과 교육의 방향은 모학문인 가정학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겠다.

첫째로 가정과 교육은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먼저 가정과 교육과정 입안자와 교사들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가정과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가정교육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와 가정과 교육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둘째로 가정과 교육은 기술과학적인 내용 중심에서 탈피하여 실천적인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즉 가정과 교육은 사회와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각 개인인 현재체에 대해 반사숙고적 사고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실천적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 입안시 가정학의 세분화된 분야별 전공자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육 전공자 및 현장교사들의 참여가 요청된다. 또한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가정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A. 결 론

가정학의 당면문제점과 그 배경요인을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제시등을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구대상의 모호성, 학문적 성격의 모호성, 연구방법의 제한성과 같은 가정학의 당면문제점들은

대학의 가정학 및 가정과 교육의 방향설정에 혼돈을 가져왔다. 즉, 이러한 문제점들은 가정학의 학문적 대상과 성격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가정대학의 교과과정 편성 및 연구방향에 있어서 기술적 지식의 강조와 세분화 경향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경향은 중등학교 교육과정에도 나타났으며, 철학적 연구의 부족으로 가정학의 본질이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교육과정이 구성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지지 못하였다.

둘째로 이와같은 가정학의 당면문제점들을 야기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학 성립시기부터 가정학의 본질적 개념들에 대한 학계내의 진지한 연구나 합의 과정이 없이, 당시 미국의 경향을 수용한 경향에서 비롯되었다. 초기의 가정과 교육과정은 미국에서 수학한 몇몇 가정학자들에 의해 구성된 성향이 짙었고, 그 내용은 당시 미국의 경향과 같이 기술과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가정학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처럼 우리보다 앞선 혁신적인 연구업적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나라 가정학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겠으나, 무비판적인 수용태도는 과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가정학은 본래 실천과학으로서 학문적 성격을 가지므로, 단순히 이론의 제시에 그치서는 안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실천과학으로서 가정학은 실천적 행동을 통하여 기존의 관습과 전통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연구는 세부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각각의 부분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통합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야 하며, 이와같이 통합된 지식의 실천적 적용이 필요하다.

넷째로 실천과학이자 임부지향적인 전문분야로서 가정학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정학자들 스스로가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인식하여야 한다. 전문분야로서 가정학은 개인과 가족으로 하여금 자주적으로 행동하고, 기존의 그릇된 선입견을 해방적 행동영역을 통해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명을 갖는다. 그러므로 가정학 및 가정과 교

육의 실무자들은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가정학이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으로 인정받고,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은 가정학의 당면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학의 철학적, 역사적 연구 등 다양한 성격의 연구가 행해져야 한다. 즉 가정학의 본질, 학문적 성격등을 규명하는 원론적 연구와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당면문제점들과 배경요인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보다 철학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제까지 단순히 역사적 사실들을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던 가정학의 역사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여 보다 분석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가정학의 당면문제점을 선정하고, 그 배경요인들을 규명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학자들에 대한 면접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즉, 가정학 전공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그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는 등 보다 실제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로 가정학의 당면문제점과 배경요인을 제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적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한 학계내의 개선의지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그 원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자들간의 자유로운 논의과정을 통한 장기적인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정학 및 가정과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대학과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의 연구가 요청된다. 즉, 이제까지 지속되어온 가정학의 기술과학적 측면과 세분화 경향에서 벗어나 본래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교육과정의 개발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이제까지 부족되었던 가정학의 철학적 측면을 다루는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김경미(1993), 『우리나라 가정학 본질 규명에 관련된 근본개념들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2) 김경식·조규남(1991), 『교육사·철학강의』, 서울: 교육과학사.
- 3) 모수미·최정화·이기영·김외숙(1994), 『가정학 원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4) 문수재(1986), 미래의 가정학 연구의 가능성, 『대한가정학회지』, 24권, 143-149.
- 5) 문수재·이기열(1984), 한국 가정학의 미래발전을 위한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22권3호, 181-198.
- 6) 서병숙(1990), 가정학과 윤리, 『대한가정학회지』, 28권, 17-24.
- 7) 세계사상권집회(1975), 『세계사상사전-세계사상대진집 별책』, 서울: 대양서적.
- 8) 신석호(1988), 『현대철학사』, 서울: 도서출판 여명.
- 9) 신일철(1987), 『현대철학사상의 새 흐름』, 서울: 집문당.
- 10) 우영희(1973), 가정학의 변천과 대학가정학교육의 방향, 『국민대 논문집』, 351-372.
- 11) 유태명(1992), 가정과 교육방향의 재조명을 위한 가정학 철학 정립의 중대성, 『'92년도 제4차 학술대회: 제6차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대한 교육방안』, 한국가정교육학회, 43-59.
- 12) 윤복자·김경희(1983), 가정학 철학에 대한 Vincenti의 사적사상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1권 3호, 151-160.
- 13) 윤서석(1981), 한국 가정학의 역사, 『대한가정학회지』, 19권 4호, 101-104.
- 14) 윤평중(1992),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서울: 교보문고.
- 15) 이기열(1987), 가정학의 전문성과 영역, 『대한가정학회지』, 25권, 155-160.
- 16) ———(1991), 21세기를 향한 가정과 교육의 방향, 『'91년도 제3차 학술대회』, 한국가정교육학회, 1-21.
- 17) 이기훈(1989),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문제점, 『대한가정학회지』, 27권, 255-258.
- 18) 이은해·강혜원(1983), 가정과 교과과정의 내용 선정 및 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탐색: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1권 3호, 139-149.
- 19) 이인희·이옥임(1990), 『가정과교수법』, 서울: 수학사.
- 20) 이인희·윤서석·장정옥(1992), 『가정학원론』, 서울: 수학사.
- 21) 이해명(1986), 『고도산업사회의 교육과정 및 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22) 아화가정학 50년사 편찬위원회(1979), 『이화가정학 50년사』, 서울: 이대가정대학.
- 23) 임희섭(1984), 『한국의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서울: 현암사.
- 24) 장명옥(1989), 『가정학원론』, 서울: 교문사.
- 25) 진세경(1989), 우리나라 가정학과 가정교육학의 시대별 연구동향, 『중대 가정학보』, 6집, 7-16.
- 26) 정덕희(1988), 가정학 과기 현재 미래와 가정학의 과제, 『서울교대논문집』, 21집, 155-166.
- 27) 정재걸(1988), 지식의 사적 분화 과정과 제도화된 지식으로서의 교육내용, 『교과서와 이데올로기』, 윤구병 엮음, 서울: 천지.
- 28) 조복희(1991), 『가정학 연구방법론』, 서울: 교문사.
- 29) 최이순(1959), 가정생활의 합리화를 위하여, 『대한가정학회지』, 창간호, 2-3.
- 30) ———(1979),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가정학의 위치, 『대한가정학회지』, 17권, 131-136.
- 31) 홍두승(1984), 가정학연구의 방법론적 과제, 『대한가정학회지』, 22, 193-194.
- 32) 나이트, G.R.(1991), 『교육철학』, 김병길(역), 서울: 교육과학사.
- 33) 넬러, G.F.(1987), 『교육과 현대사조』, 전경갑(역), 서울: 성원사.
- 34) 발, J.(1987), 『프랑스철학사』, 김관오 외(역),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35) 보토모어, T.(1984),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사회

- 비판이론』, 진덕규(역), 서울 : 학문과 사상사.
- 36) 애플, M.(1987), 『교육과 권력』, 최원형(역),
- 37) Brown, M.M.(1980), What is Home Economics : A Definition, Washington D.C :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38) ———(1984), Home economics : Proud Past - promising future, 1984 AHEA Commemorative Lecture. *Journal of Home Economics*, 76(4), 48-54.
- 39) ———(1985), Philosophical studies of Home Economics in the United States - Volume I. II. Michigan State University.
- 40) ———(1986), Home Economics : A Practical or Technical Science? *Vocational Home Economics Curriculum : State of Field*.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41) Brown, M.M. & B. Paolucci(1979), Home Economics : A Definition, Washington D.C :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42) East, Marjorie(1980), Home Economics — Past, Present, and Future. Boston: Allyn and Bacon, INC.
- 43) Vincenti · Virginia B.(1981), A History of the Philosophy of Home Econom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